

# 『東醫寶鑑』과 『本草綱目』의 한국적 專有와 조선후기 의학 특징의 형성 -『本草類函』과 『本草類函要領』을 중심으로-

권오민<sup>1</sup>, 차웅석<sup>2</sup>, 박상영<sup>1</sup>, 오준호<sup>1</sup>, 안상우<sup>3</sup>

<sup>1</sup>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그룹, <sup>2</sup>경희대학교 의과학교실, <sup>3</sup>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사업단

## The Appropriation of *Donguibogam* and *Bencao Gangmu* and the Shaping of Distinctive Korean Medicine in the late Joseon Dynasty

Ohmin Kwon<sup>1</sup>, Wungseok Cha<sup>2</sup>, Sangyoung Park<sup>1</sup>, Junho Oh<sup>1</sup>, Sangwoo Ahn<sup>3</sup>

<sup>1</sup>Medical History & Literature Research Group,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sup>2</sup>Kyung Hee University,

<sup>3</sup>Global DongUiBoGam Cent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Bonchoyuham Nyoryeong*(本草類函要領) shows how *Donguibogam*(東醫寶鑑) -*Mirror of Eastern Medicine*- is understood, digested into Korean medicine, and at the same time how it participated in the historical shaping of Korean medicine since the publishing in the early 17th century.

The author, Hyeon Jae-deok, internalized the structure, content, and significance of *Donguibogam* and drew out a novel, concise, but comprehensive type of medical manual, while many other medical books since the 17th century in Korea are estimated to have been an abridged edition of the *Donguibogam*. It may well be estimated as exemplar of the extent to which *Donguibogam* informed Korean medicine since the 17th century. The book shows as well how *Bencao Gangmu*(本草綱目) -*Compendium of Materia Medica*- and *Donguibogam* are merged and set a new medical stream in the 19th century Korea.

Hyeon Jae-deok looked at the *Bencao Gangmu* from the lens of clinical treatment and prescription such that he focused on sections, elements, or parts of procedures, treatments, and prescriptions, not on the herbal taxonomic knowledge of the book. This perspective was embodied in *Bonchoyuham*(本草類函), which cited simple remedies, prescriptions, or treatments from *Bencao Gangmu*.

**Keywords :** *Bencao Gangmu*, *Donguibogam*, Korean medicine, medical history, medical exchange

## I. 들어가는 말

보통 『東醫寶鑑』과 『本草綱目』이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의학적 성과의 대표적 사례들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다. 『동의보감』은 새로운 인체관과 질병관으로 당대까지의 동아시아 의학 이론과 치료법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하였고 이후 새로운 의학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17세기 이후 의학의 특성을 결정짓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sup>1)</sup> 『본초강목』은 편찬 이후 동아시아 약물학의 대표적 문헌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세계적으로 유포되었다. 그만큼 동아시아 지역에서, 더 나아가 지역적 한계를 넘어 두 의학서가 발휘한 영향력은 상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동의보감』 자체와 『동의보감』이 남긴 역사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척되었으나, 우리나라 의학 지형에서 『본초강목』이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나, 이것이 차지하고 있었던 의학상의 지점으로 인해 우리나라 의학 지형의 역사적 전개에 미친 영향에

접수 ▶ 2011년 6월 30일 수정 ▶ 2011년 7월 28일 채택 ▶ 2011년 7월 29일  
교신저자 안상우,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21-2 SM 빌딩 6층  
Tel 02-790-2016 Fax 02-795-2015 E-mail answer@kiom.re.kr

1) 동의보감발간 400주년기념사업단. 『동의보감 UNESCO 세계 기록유산 신청서』. 문화재청. 2008.

대한 연구는 거의 미미하였다. 사실 『본초강목』이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확산되는 과정에 대한 초보적 연구조차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아직 『본초강목』의 우리나라 유래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本草類函』과 『本草類函要領』, 이 두 의학서가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을 어떻게 專有하였고, 이 전유가 한국의학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조선 후기 우리 의학의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본초강목』이 한국화 되어 가는 과정의 한 단면과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한국 의학의 특성이 『본초강목』을 이해하고 흡수하는 방식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II. 저자에 대하여

### 1. 玄在德의 가계

『본초유함』과 『본초유함요령』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면, 저자인 현재덕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일차적 접근법이 될 것이다. 현재덕은 본관은 川寧이고, 자는 士說이며 초명은 玄應遠으로 辛卯年(1771)에 출생하였다. 정조 13년(1789)에 실시한 己酉 式年試 의과에 19세의 나이로 합격하였다.

현재까지 현재덕은 친가가 譯官, 외가가 寫字官 집안 출신으로<sup>2)</sup> 조선후기의 문인이자 서예가로 알려져 있다. 초서에 능하였으며 독특한 글자체인 ‘弇山體’를 발명하였다. 또한 그는 扁障·碑版을 많이 썼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옛 글씨를 모사한 서책인 『草彙』를 쓰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 申緯와 金正喜가 높히 평가하였

다고 한다. 특히 초서에 뛰어났는데 속도감이 넘치는 독특한 運筆은 ‘감산체’라 불린다.

의학적으로 현재덕은 『본초유함』과 『본초유함요령』의 저자로 알려져 있으나, 알려진 바는 많지 않다. 안상우<sup>3)</sup>가 의학적 측면을 발굴하여 간략하게 소개한 정도가 전부이다. 『朝鮮時代雜科合格者總覽』의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sup>4)</sup>

〈Table 1〉 현재덕의 이력사항 및 가족사항

이력사항

| 관직 | 內醫 | 知樞 | 首醫 | 監書 | 僉節制使 |
|----|----|----|----|----|------|
|----|----|----|----|----|------|

가족사항

|    | 부        | 조부       | 증조부   | 외조부 | 처부  |
|----|----------|----------|-------|-----|-----|
| 성명 | 玄燾       | 玄啓根      | 玄深    | 金天秀 | 李命存 |
| 본관 |          |          |       | 善山  | 慶州  |
| 관직 | 敎誨<br>知樞 | 知樞<br>知事 | 司譯院判官 | 同知  | 贊儀  |
| 타과 | 譯科       | 譯科       |       |     |     |

위의 표에서의 현재덕 관련 기록은 『承政院日記』나 『日省錄』의 기록과 대부분 일치하지만, 위 표의 조부와 증조부에 대한 기록은 『승정원일기』나 『일성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를 통해 당대까지 현재덕과 그의 형인 玄在明<sup>5)</sup>이 가문에서 가장 높은 관직에 오른 인물로 추정할 수 있다.

### 2. 현재덕의 생애

현재덕의 관직 생활은 규장각·내의원·武官外職의 3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승정원일기』 순조 원년(1801)<sup>6)</sup>에는 ‘領籤인 현재덕을 내의로 加出한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덕에 대한 최초의 공식기록이다. 영침이 규장각의 직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1789년 식년시 의과에 합격하였지만 최초의 공직생활은 의관이

2) 川寧 玄氏는 주로 역과(105명)과 의과(46명)를 통하여 관직에 진출하였다. 천녕 현씨의 자세한 중인집안활동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김양수, 「동아시아 전통철학사상과 세계화 ; 조선전환기의 중인 집안활동 - 玄德潤 玄采 玄楯 등 川寧玄氏 譯官家系를 중심으로 -」, 『동방학지』 Vol.10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8.

\_\_\_\_\_, 「조선후기의 교회역관 -『교회청신생안』의 분석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Vol.24, 조선시대사학회, 2003.

\_\_\_\_\_, 「조선후기 倭語譯官 -『譯科榜目』의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와실학』 제37집, 역사실학회, 2008.

3) 안상우, 고의서산책 85 『명필로 적어내린 치료지침』, 민족의학신문.

\_\_\_\_\_, 고의서산책 86 『綱目을 再編한 임상본초서』, 민족의학신문.

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DB에서 재인용. 콘텐츠 목차>인물사전>인물검색결과>관련정보.

5) 玄在明 : 형인 현재명은 首譯의 자리까지 올랐다. 『일성록』의 1810년 3월 17일 기사에 “冬至使 首譯 玄在明, 進聞見別單.”이라고 되어 있다.

6) 『승정원일기』 순조 원년(1801) 7월 28일.

아닌 규장각 관원에서 시작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sup>7)</sup>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집안이 대대로 역관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 이후로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의 기록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현재덕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sup>8)</sup> 순조 12년(1812)에는 정3품 상계인 通政大夫를 하사받는다.<sup>9)</sup> 2년 후 서적 발간의 공로로 邊將<sup>10)</sup>을 제수 받고,<sup>11)</sup> 새로 이 병조 소속의 종3품 東里僉使로 임명되나 출간 관련한 시급한 현안이 있어 외직인 동리첨사 부임을 뒤로 미루어 달라는 규장각의 장계가 있었는데, 임금은 이를 허락하는 기록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의관이면서 의서출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순조 17년(1817)에 현재덕이 종2품 五衛將으로 임명되었다가 물러나게 되는데, 해임사유가 병난이 해결된 것으로 보아 당시 질병이 유행하면 의관을 무관직에 임명하여 질병과 관련된 제반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게 하였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sup>12)</sup>

순조 20년(1820)에는 『의학입문』의 간행 과정에서 교정과 감인을 담당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sup>13)</sup> 또 『일성록』 1833년 3월 15일 기록에 의관이 입실하여 진맥하라는 어명에 ‘현재덕 등이 입진하였다.’는 기록이 최초로 보이고 이후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1833년을 전후해서 현재덕이 수의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나 추정해 볼 수 있다.<sup>14)</sup> 그리고 『본초유합』이 1833년 같은 해에 초고가 완성되었지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해에 사망하였거나, 의관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보면, 현재덕은 1789년 의과에 합격한 이후 상당기간 규장각에서 서적, 특히 의서 출간에 관여하

였고, 이후 장기간 의관직이나 무관직에 종사하였다고 보여진다. 40년 이상, 생애의 3분의 2 이상을 관직 생활을 하였고, 의관으로서 최고직인 수의의 직위까지 이르렀다.

### Ⅲ. 『본초유합요령』의 특징

『본초유합요령』은 『동의보감』의 각각의 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당히 발췌하여 실제 진료에서 쉽게 병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게 만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의 깊게 살펴보면, 지향하는 목표는 확실히 쉽게 병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있지만,<sup>15)</sup> 『동의보감』의 관련 부분을 완전히 소화하여 자기만의 언어로 간략 명료하게 정리하였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본초유합요령』은 증상과 질환의 특성을 파악하여 『본초유합』에 적시되어 있는 처방을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간이 의학이론서라 할 수 있다. 『본초유합』이 처방집이라면 『본초유합요령』은 질병별 이론과 치료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병인병증을 분야별·증상별로 분류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조선후기의 대부분의 민간 의학저작물이 『동의보감』을 단순히 발췌하여 요약한 것이라면, 『본초유합요령』은 『동의보감』을 기반으로 하여 완전히 독자적인 간이 의서를 저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저자가 수의의 자리에 오를 만큼 당대 최고의 의학이론과 경험을 겸비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본초유합요령』은 크게 「通治部」·「上部」·「中部」·「下部」·「婦科」·「兒科」·「外科」로 구분하였으며, 그 아래에 각각의 증상과 병증, 또는 부위별로 문을 구성하였다. 문 구성의 특징은 『동의보감』의 목차를 차용하면서도 『동의보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인 「內景篇」에 속해 있는 문들을 모두 「통치부」에 재분류하여 ‘내경’이란 대분류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또한 약물학과 침구학 분야인 「湯液篇」과 「鍼灸篇」에 속해 있는 내용들은 모두 제외하였다. 그리고 『동의보감』에는 「雜病篇」에 속해 있는 ‘부인’과 ‘소아’에 관한 부분은 따로 대분류로 구성하였다. 결과적으로 『본초강목』의 목차 부분인 3권과 4권의 분류 순서와 유사해지는데, 『본초강목』 3권은 대체적으로 증상과 질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4권은 『동의보감』의 「外形篇」과, 「雜病篇」

7) 규장각은 내각과 외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학·직제학 각 2인, 직각과 대교 각 1인, 그 다음으로 검서관과 영첨 각 2인, 그리고 잡직으로 서리 등 74명을 정원으로 하였다. 국내·외 도서와 왕과 외교 관련 문서를 보관하였다.

8)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9) 『승정원일기』 순조 12년(1812) 4월 26일.

10) 邊將: 僉使·萬戶·權管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이다.

11) 『일성록』 순조 14년(1814) 3월 23일.

12) 『승정원일기』 순조 17년(1817) 10월 13일. “李鶴秀, 以兵曹言啓曰, 宣傳官 柳相弼, 五衛將 金相順, 玄在德, 慶熙宮 衛將, 李雲綱, 俱以病難供職, 呈狀乞遞, 竝改差, 何如? 傳曰, 允.”

13) 『승정원일기』 순조 20년(1820) 12월 10일. “... 醫學入門矣. 是書即醫學之指南, 而舊板剝弊, 不復印行於世, 由是業 醫者, 無所傳習, 率多墮面之歎. ... 醫官之校正監印者, 卽吳千根·玄在德·慶輯三人, 其效勞甚多.”

14) 『일성록』 순조 33년(1833) 3월 15일. “予命醫官入診, 玄在德等, 診候訖奏曰脈候左右三部調均矣.”

15) 『본초유합요령』에서 현재덕은 그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Table 2〉『본초유함요령』 구성 목차

|              |       |           |           |           |           |
|--------------|-------|-----------|-----------|-----------|-----------|
| 本草類函要領<br>小序 | 霍亂門   | 怔忡驚悸門     | 牙齒門       | 遺精門       | 驚癇門       |
|              | 咳嗽門   | 附健忘       | 咽喉門       | 小便門       | 諸病門       |
| <b>通治部</b>   | 哮喘門   | 諸蟲門       | 聲音門       | 大便門       | 諸疳門       |
| 諸風門          | 嘔吐門   | 勞瘵門       | 鬚髮門       | 腸風下血門     | 諸瘡門       |
| 附麻痺          | 噎膈門   | 瘟疫門       |           | 痔疾門       | 附丹毒       |
| 傷寒門          | 吞酸嘈雜門 | 附瘴氣       | <b>中部</b> | 脫肛門       | 痘疹門       |
| 附中寒感寒        | 呃逆門   | 癰癤門       | 心痛門       |           |           |
| 痼冷門          | 消渴門   | 邪祟門       | 胸脅門       | <b>婦科</b> | <b>外科</b> |
| 暑病門          | 積聚門   | 奇疾門       | 腹痛門       | 經血門       | 癰疽瘡瘍門     |
| 濕病門          | 附癰瘰癧塊 | 救急門       | 腰痛門       | 崩漏門       | 疹癩癰癧門     |
| 火熱門          | 浮腫門   |           | 手臂門       | 附帶下       | 附丹毒       |
| 諸氣門          | 脹滿門   | <b>上部</b> |           | 妊娠門       | 瘰癧癰瘤門     |
| 附鬱結          | 黃疸門   | 頭病門       | <b>下部</b> | 臨產門       |           |
| 失血門          | 瘡疾門   | 面病門       | 足脛門       | 產後門       |           |
| 痰飲門          | 痢疾門   | 眼疾門       | 前陰門       | 乳病門       |           |
| 虛損門          | 泄瀉門   | 耳病門       | 癰疽門       | 陰病門       |           |
| 酒食傷門         | 諸汗門   | 鼻病門       | 諸淋門       | <b>兒科</b> |           |
| 附調理脾胃        | 睡寐門   | 口舌門       | 赤白濁門      | 初生門       |           |

〈Table 3〉『동의보감』목차

|             |            |    |            |    |            |            |
|-------------|------------|----|------------|----|------------|------------|
| 『東醫寶鑑』<br>序 | 脾臟         | 耳  | 手          | 暑  | 癰疽下        | 穀部         |
|             | 肺臟         | 鼻  | 足          | 濕  | 諸瘡         | 人部         |
| <b>內景篇</b>  | 腎臟         | 口舌 | 毛髮         | 燥  | 諸傷         | 禽部         |
| 集例          | 膽腑         | 牙齒 | 前陰         | 火  | 解毒         | 獸部         |
| 歷代醫方        | 胃腑         | 咽喉 | 後陰         | 內傷 | 救急         | 魚部         |
| 身形          | 小腸腑        | 頸項 |            | 虛勞 | 怪疾         | 蟲部         |
| 精           | 大腸腑        | 背  | <b>雜病篇</b> | 霍亂 | 雜方         | 果部         |
| 氣           | 膀胱腑        | 胸  | 天地運氣       | 嘔吐 |            | 菜部         |
| 神           | 三焦腑        | 乳  | 審病         | 咳嗽 | <b>雜病篇</b> | 草部(上)      |
| 血           | 胞          | 腹  | 辨證         | 積聚 | 婦人         | 草部(下)      |
| 夢           | 蟲          | 臍  | 診脉         | 浮腫 |            | 木部         |
| 聲音          | 小便         | 腰  | 用藥         | 脹滿 | <b>雜病篇</b> | 玉部         |
| 言語          | 大便         | 脇  | 吐          | 消渴 | 小兒         | 石部         |
| 津液          |            | 皮  | 汗          | 黃疸 |            | 金部         |
| 痰飲          | <b>外形篇</b> | 肉  | 下          | 瘰癧 | <b>湯液篇</b> |            |
| 五臟六腑        | 頭          | 脉  | 風          | 瘟疫 | 湯液序例       | <b>鍼灸篇</b> |
| 肝臟          | 面          | 筋  | 寒          | 邪祟 | 水部         |            |
| 心臟          | 眼          | 骨  | 寒下         | 癰疽 | 土部         |            |

중 ‘부인’·‘소아’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윤곽인 대분류는 『본초강목』의 3권과 4권의 차서를 따른 듯하고, 중분류에 해당하는 문의 구성을 보면 『동의보감』의 구성을 차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3〉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적으로 『본초유함요령』 ‘동치부’의 「諸風門」-「火熱門」은 『동의보감』의 잡병편 권3, 「諸氣門」-「痰飲門」은 내경편 권2, 「虛損門」-「附調理脾胃」은 잡병편 권4, 「霍亂門」-「嘔吐門」은 잡병편 권5, 「消渴門」-「黃疸門」은 잡병 편 권6, 「睡寐門」-「附健忘」은 내경편의 ‘神’ 부분과 유사하다. ‘상부’는 『동의보감』 외형편 1권·2권·3권과 거의 대동소이하고, ‘하부’는 『동의보감』보다는 『본초강목』의 3권의 후반부에 나오는 대소변과 향문질환 부분과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 그리고 ‘부과’와 ‘아과’ 부분 살펴보면,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의 분류가 유사하고, 『본초유함요령』의 차서도 이들과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본초유함요령』 목차 배치의 전반적인 윤곽은 『본초강목』을 참고하였고, 중분류의 차서는 『동의보감』의 분류를 많이 차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세기 초에 활동한 현재덕이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였고, 이를 이용해 자기 자신의 분류체계를 도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18-19세기의 많은 의서들이 『동의보감』을 모본으로 부분 발췌하여 책을 구성하였다면, 『본초유함요령』은 발췌가 아니라 문별로 『동의보감』의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완전하게 자신의 언어로 요약 정리하였다. 따라서 『본초유함요령』은 요즘의 잣대로 보아도 현대에 문제가 되고 있는 표절의 혐의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단순한 발췌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글자나 단어 일치 검색으로는 상호 연관관계를 찾기가 어려우며, 전체 내용을 어떻게 요약했는가, 어느 부분을 요약했는가로 접근해야 상호 연관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초유함요령』은 조선후기에 와서 『동의보감』이 어느 정도 심도있게 읽혔고 이해되었으며 숙지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본초유함요령』의 분류체계는 대체적으로 『본초강목』과 『동의보감』을 참고하여 구성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 서술에서는 『동의보감』을 전유하였다.

#### IV. 『본초유합』의 특징

얼핏 보기에 『본초유합』은 『본초강목』의 요약본 같아 보인다. 서명이 의미하는 바도 그러하거나, 『본초강목』을 바탕으로 하였다면 본초서로 이해하는 것 이외에 달리 생각해 볼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현재 덕은 바로 이런 상식적 사고를 벗어난 창의성을 『본초유합』에서 발휘하였다. 현재덕이 『본초유합요령』의 서문에서 “이 책으로 인해 李時珍의 온갖 처방들이 흩어졌던 것이 합해지고 숨겨졌던 것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sup>16)</sup> 『본초유합요령』에서 흩어져 있던 이시진의 처방이 한곳에 모여 드러나지 않았던 의미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초유합』의 구체적 내용과 연계하여 파악해 보지 않았다면, 이 간단한 한 문장으로 『본초유합』이 본초서가 아니라 처방서 이리라 짐작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덕은 이시진이 저술한 한의약물학서인 『본초강목』에서 본초서의 기본적인 목적이라 할 약물의 진위나 채집 등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온갖 처방’에 주목하였다. 이런 방식의 『본초강목』 읽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무후무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이점이 현재덕의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현재덕은 『본초강목』의 개개의 본초 약물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시진의 흩어져 있는 처방에 주목하였다. 흩어져 있는 이시진의 처방을 모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증상별·부위별로 처방을 모아놓은 의서가 바로 『본초유합』이다. 따라서 『본초유합요령』과 『본초유합』은 자매서로서, 『要領』은 질병론이고, 『본초유합』은 바로 이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집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본초유합』을 본초서로 이해해서도, 본초서로 분류해서도 안 될 것이다.

『본초유합』은 전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초고본 형태라 책 수는 존재하지 않으나 총 22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22권 내에서 문의 구성은 『본초유합요령』의 문의 구성과 동일하다. 다만 마지막 권22의 「보양제방」 부분은 『요령』에 대응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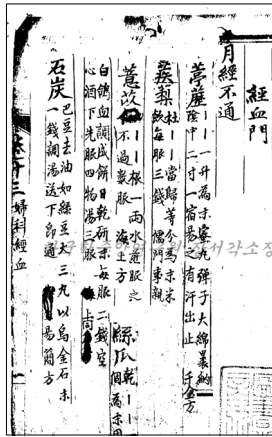
각각의 문 안에는 개별 증상 아래에 해당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본초들을 배열하였다. 그리고 본초 아래에는

해당 약재의 사용법과 치료 분야를 기술하였다. 『동의보감』의 구성과 비교하였을 때 『동의보감』에서는 증상이나 질병 아래에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을 배열하고, 다시 처방의 주치증을 배열하였는데, 『본초유합』에서는 증상이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본초, 어떤 면에서 단방을 배열하고, 본초 아래에 이 본초, 즉 단방의 치료 활용법을 배치하였다. 즉, 처방의 자리에 단방 약재를 배치하였고, 처방 설명의 자리에 단방 약재의 활용법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부과」 ‘경혈문’이 ‘月經不通’으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 바로 단방 약재와 이에 대한 활용법이 이어진다. 「아과」의 ‘초생문’의 시작인 ‘初生宜用’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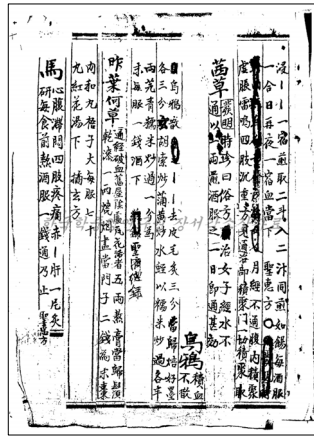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런 『본초유합』의 구성과 『본초강목』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를 위해 『본초강목』의 대략적인 구성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초강목』은 5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서문·집서성씨·부도·총목·범례가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고, 권1과 권2에서 의학과 본초관련 개론적 설명을 두고 있다. 이어 권3과 권4에서 질병증상과 부위별로 상용 약재를 간략하게 나열하였다. 이 부분의 질병과 부위의 배열순서는 『본초유합』과 『요령』에 대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어 『본초강목』의 본론인 약재 설명이 이어진다. 약재의 분류는 水部·火部·土部·金石部·草部·穀部·菜部·果部·木部·服器部·蟲部·鱗部·介部·獸部·人部 순으로 배치하였다. 약재 자체에 대한 설명은 본초 이름 아래에 釋名·集解·修治·氣味·主治·發明·附方 등을 두었다. ‘석명’부터 ‘기미’까지는 개별 약재의 이름·산지·위품·제조 등에 관한 내용이고, ‘주치’부터 ‘부방’까지는 개별 약재를 어떻게, 어떤 질병에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다. 사실 『본초유합』을 이해하는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본초유합』에는 전반부의 개별 본초에 대한 설명은 인용하지 않았고, 바로 약재의 활용 부분을 집중적으로 인용하였기 때문이다. 활용 부분만 따로 인용하였다는 것은 현재덕이 『본초강목』을 본초서로서 읽은 것이 아니라 단방이나 간단 처방을 발굴하는 자원으로서 『본초강목』을 바라보았다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본초강목』을 인용하여 완성된 『본초유합』은 본초서적으로 볼 수 없으며 단방집이나 처방집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현재덕은 『본초유합』에서 본초서인 『본초강목』을 자원으로 활용하긴 하였으나 본초서로서가 아니라 바로 간단한 치료법의 원천으로서 『본초강목』을 전유한 것이다. 이는

16) 『본초유합요령』, 서문. “余既編成, 本草類函, 或告余曰, 東壁諸方, 於是, 可謂散者合, 奧者著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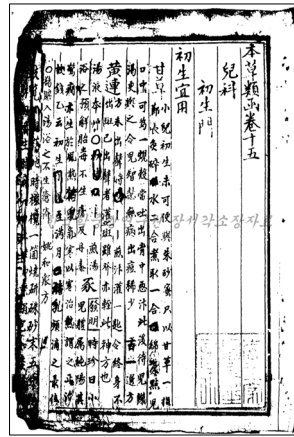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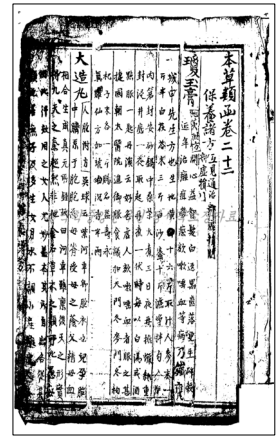
(Fig. 1) 『본초유함』 경혈문 (장서각 소장본)



(Fig. 2) 『본초유함』 경혈문 (장서각 소장본)



(Fig. 3) 『본초유함』 초생문 (장서각 소장본)



(Fig. 4) 『본초유함』 보양제방 (장서각 소장본)

현재덕만의 독특한 『본초강목』 독법이자 전유라고 할 수 있다. 『본초유함』에서 발췌한 문구들이 바로 『본초강목』과 『본초유함』과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예이다. 권1 「제풍문」· 권4 「해수문」· 권5 「적취문」· 22권 「보양제방」의 모든 인용구는 모두 『본초강목』에서 글자 하나도 바꾸지 않고 발췌한 것이기는 하나 **모두 '부방'과 '발명' 부분에서 발췌하여 본초의 기원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모두 어떻게 간단한 처방을 구성하여 치료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발췌된 것들이다.**

### 권1 「제풍문」

絲瓜 (附方) … 防風荆芥一兩, 升麻半兩, 薑三片, 水一棗, 煎半棗, 以絲瓜子研取漿半棗和勻灌之, 如手足麻癢, 以羌活煎湯洗之, 唐瑤經驗方 …

### 권4 「해수문」

(發明) 又按趙潛養病慢筆云, 越州一學錄少年, 苦嗽, 百藥不效, 或令用南向柔桑條一束, 每條寸折, 納鍋中以水五盃煎至一盃, 盛瓦器中, 渴即飲之, 服一月而愈, 此亦桑枝煎變法爾.

巴豆 (附方) 巴豆一兩, 蛤粉二兩, 黃蘗三兩, 爲末, 水丸綠豆大, 每水下五丸, 醫學切問.

### 권5 「적취문」

虎杖 (發明)[時珍曰]孫真人千金方, 治女人月經不通, 腹內積聚, 虛脹雷鳴, 四肢沉重, 亦治丈夫積聚, 有虎杖煎, 取高地虎杖根剉二斛, 水二石五斗煮取一斗半, 去滓, 入醇酒五升, 煎如☉每服一合, 以知爲度.

### 22권 「보양제방」

地黃 (附方) … 瑤玉膏 常服開心益智, 髮白返黑, 齒落更生, 辟穀延年, 治癰疽勞瘵, 欬嗽唾血等病, 乃鍼囊城申生方也, 生地黄汁十六斤, 取汁, 入參末一斤半, 白茯苓末三斤, 白沙蜜十斤, 攄淨, 拌勻入瓶內, 箬封, 安砂鍋中, 桑柴火煮三日夜, 再換蠟紙重封, 浸井底一夜取起, 再煮一伏時, 每以白湯或酒點服一匙, 丹溪云, 好色虛人欬嗽唾血者, 服之甚捷, 國朝太醫院進御服食, 議加天門冬麥門冬枸杞子末各一斤, 賜名益壽永真, 回仙方加琥珀沉香半兩.

그렇다면 현재덕은 방대한 『본초강목』에서 무엇 때문에 주치·발명·부방 부분에 주목하였을까? 이는 아마도 현재덕이 살았던 19세기 전후의 사회 의학적 상황에서 기인하였을 것이다. 당시는 조선이 쇠락해가는 시기로, 사회적·사회정치적 불안정과 함께 의료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던 시기였다. **관급 의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의료 시장은 아직 성장하지 않아서 일반 백성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질병 치료법은 보급되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덕 자신이 어느 곳에서도 『본초유함요령』과 『본초유함』의 저술 목적을 사회 의학적 관점에서 기술한 곳은 없다. 추측컨대, 바로 이런 의학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간단한 단방이나 간이방 형태의 의료적 처치법을 보급하려는 의도에서 『본초유함요령』과 『본초유함』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 V. 맺는말

『본초유함요령』과 『본초유함』은 초고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덕이 어떤 형식으로 출간하려했는지는 현재 알 수 없다. 각각 따로 출간하고자 했을 수도 있고, 두 서적을 묶어 한 의학서로 출간하고자 했을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요령』의 서문에서 밝혔듯이 『본초유함』이 먼저 쓰여졌고 이어 『본초유함요령』이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완성도는 『본초유함』보다 『요령』이 훨씬 높다. 『본초유함』에는 『본초강목』에서 발췌하였다가 삭제한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아마도 『본초유함』의 초고를 완성하고 이어 『본초유함요령』은 저술하였는데 『본초유함』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삭제하려 하였으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초유함요령』은 『동의보감』이 17세기 발간된 이후로 어떻게 한국 의학 내로 소화되어 내재화 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여러 사례들 중 하나이다. 17세기 이후에 출간된 많은 의서들이 『동의보감』을 발췌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음에 반해, 『본초유함요령』은 발췌가 아니라 문별로 『동의보감』의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완전하게 자신의 언어로 요약 정리하였다. 단순한 발췌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글자나 단어 일치 검색으로는 상호 연관관계를 찾기가 어려우며, 전체 내용을 어떻게 요약했는가, 어느 부분을 요약 했는가로 접근해야 상호 연관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조선후기에 『동의보감』의 확산정도와 의학적 내재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본초유함요령』의 분류체계는 대체적으로 『본초강목』과 『동의보감』을 참고하여 구성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 서술에서는 『동의보감』을 전유하였다. 『본초유함』은 본초서인 『본초강목』이 19세기 조선, 즉 한국이라는 시간적·공간적 위치 내에서 어떻게 전유되고 내재화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 중 대표적인 것이다. 사실 『본초강목』이 한국 의학내로 내재화 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는 흔치 않다. 아울러 우리는 두 의학서를 통해 17세기 전후 중국과 한국의 대표적인 의서라고 할 수 있는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이 19세기 한국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어떻게 결합되어 가는지 살펴 볼 수 있다.

현재덕은 『본초유함』에서 『본초강목』을 본초서로서의 각도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치료의 방책을 서술한 의서의 각도에서 접근하여 주치·발명·부방 부분에 주목하였다. 이는 19세기 전후의 사회 의학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도구라는 관점에서 『본초강목』을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는 조선이 쇠락해가는 시기로, 사회적·사회정치적 불안정과 함께 의료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던 시기였다. 관급 의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민간의료 시장은 아직 성장하지 않아서 일반 백성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질병 치료법은 보급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덕은 바로 이런 의학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간단한 단방이나 간이방 형태의 의학적 처치법을 보급하려는 의도에서 『본초유함요령』과 『본초유함』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1. 이시진. 『본초강목』. 중국:화출출판사.
2. 허준. 『동의보감』.
3. 현재덕. 『본초유함』. 한국학중앙연구원.
4. 현재덕. 『본초유함요령』. 한국학중앙연구원.
5. 김양수. 「동아세아 전통철학사상과 세계화; 조선전환기의 중인집안활동 -玄德潤 玄采 玄楯 등 川寧玄氏 譯官家系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Vol.10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8.
6. \_\_\_\_\_. 「조선후기의 교회역관 -『교회청선생안』의 분석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Vol.24. 조선시대사학회. 2003.
7. \_\_\_\_\_. 「조선후기 倭語譯官 -『譯科榜目』의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제37집. 역사실학회. 2008.
8. 동의보감발간 400주년기념사업단. 『동의보감 UNESCO 세계기록유산 신청서』. 문화재청. 2008.
9. 안상우. 고의서산책 85 『명필로 적어내린 치료지침』. 민족의학신문.
10. \_\_\_\_\_. 고의서산책 86 『綱目を再編한 임상본초서』. 민족의학신문.
1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일성록』, <<http://e-kyujanggak.snu.ac.kr>>

12.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
13. \_\_\_\_\_.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1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DB.  
<<http://people.aks.ac.kr>>